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 nmaum

내가 실험하고 체험하며 사는게 참선

누군가가 잠을 깨워줍니다

저는 불교를 접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교리를 배우고 원을 세우기도 하고 놀라운 경험도 하곤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법기를 간절히 청하던 어느날은 제가 경영하고 있는 가게 입구에 서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을 법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스님의 법문을 읽어 오면서 주인공 공부를 생활화하고 있던 중저의 경험담을 큰스님께 아뢰어 간절히 깨우치고 싶기에 몇자 올립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잠을 찾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면 누군가 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하며 매일같이 새벽마다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어나, 그만 자' 하고 두 번 깨우길래 눈을 떠보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어렸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다가 '나'라는 존재가 발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보느라고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거를 모르고 자기는 주인공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거기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의당히 옳지 않다면 '이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아, 이거는 옳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없어질텐데 그렇지 않고야.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절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이 호박 이파리 따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나니까, 이것도 주인공이 그러니까 괜찮다 하고선 따가는거야. 이거 우리가 삼십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공부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것은 네 마음이 너를 제도하고 내가 마음을 바로 이끌어가는 데에 있는 거다. 서로가 서로를 바로 맞춰서 유와 무를 합쳐서 현 생활에 조금도 어긋없는 길을 걸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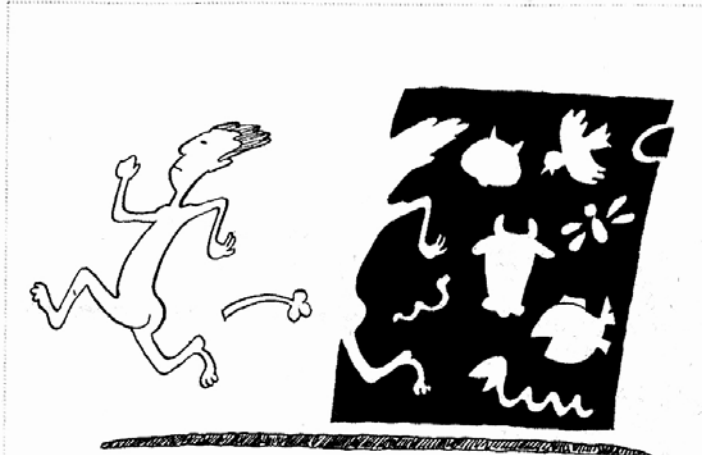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五種大恩 아는 사람이 보살행 할 수 있어 들로 보지 않으면 세상만물과 서로 통해

이게 공부다 이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현상에 도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놓고 더 열심히 관하시라 바랍니다.

물리가 터지려면...

물리가 터진다는 법문은 여여하신지요? 제가 8~9년 전에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을 때입니다. 항상 '범소 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라는 마음으로 법당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서 '그냥 한생 각 바치면 되지.' 하는 주인공의 지혜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옆을 보니 한아름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대행스님의 법문을 찾아 읽고 주인공을 관하면서 주인공을 생활 속에서 나의 중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즉시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었어!' 하는 마음으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법문에 물리가 터

져 나온다는 말씀에는 아직 확실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물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모두 참선, 좌선 한다고들 하시는 데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생활을 떠나서 참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도 없습니다. 생활을 떠나서, 그러기 때문에 좌선을 한다 좌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행선·좌선·입선·좌선 이 모두가 앉으나 서나 생활이 그냥 참선이기 때문에 그걸 한데 합쳐서 참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앉아서 여러분이 앉은 것이고, 선 것도 여러분이 선 것이고, 놓는 것도 여러분이 놓는 것이고, 푹 누는 것도 여러분이 푹 누고, 먹는 것도 여러분이 먹고, 자는 것도 여러분이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부처는 없죠. 아니 부처만 없는 게 아니죠. 세상도 없고 가정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론이나 학설, 말을 잘해서 연구를 잘하고 또 교리를 잘 알아서 체계있게 한다고 해도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마음을 잡고 발견해서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고 생활이 과학인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이 세상에 어린애를 낳는 것도 바로 과학입니다. 버를 심어서 쌀을 만드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 놓는 것도 과학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과학 아닌 게 없습니다. 어느 거는 과학이고 어느 거는 과학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물리가 터질려면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왜 스님네들이 허허 별관에 가만히 앉았기도 하고 비가 여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냥 풀밭에 그냥 앉았고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앉았

기도 하고 찬등반개가 치고 그러는데도 앉았기도 하고 높은 산골짜기에 앉았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한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씻음을 했지만 오종대은(五種大恩)을 알라.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생명 전체에 감사할 줄 알아야 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내지 않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수·화·풍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이 세상 풀 한 포기 감사하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곤충 하나도.

그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억겁 공

내마음이 나를 제도하고 내가 마음을 바로 이끌어 현실에 맞아야 바른 공부

년을 거치면서 쫓고 쫓으면서 먹고 먹으면서 이 세상에 거들거들 거처나오면서 진화해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났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내 부모요 어느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 하겠습니까? 거들거들 거처나오 짐승의 부모도 났다가 짐승의 자식도 났다가, 곤충의 부모도 났다가 곤충의 자식도 났다가, 또 땅 부모의 자식이 났다가 땅 부모가 되고, 거들거들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땅 구름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 인생살이가 같습니다. 그러나 남의 부모만 남의 부모고 내 부모만 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 도리가 바로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종대은을 아는 사람, 그 모두 할 수가 있다. 모든 데 착을 두지 않고 사랑할 줄 알고...
이 돈이고 흙이고 물이고 생명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를 가지고 이거 끊어질까봐 붙들고 있는 겁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타의에서 구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진실되지 못합니다. 진실되게 믿으면서 진실되게 구하고 진실된 나를, 참나를 구하는 소식을 그때서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보시지마는 어떠한 경험을 얻는다 하더라도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있었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뛰어난 수 있는 겁니다.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생활에서 행하면서 그대로 참선이라고 하는 데도 지치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세 가지가 다 총분해야만 따르라고는 했습니다. 뜻과 말과 행을 따르라고! 믿는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즉 수십억 마리를 마음으로 다스려서 한마음으로 묶어 세운다면 바로 주장자입니다. 그게, 그리고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면서도 참나참나에 들어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풀잎 하나도 감사하고 저 물이 흘러가는 것도 감사하고... 물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 같이만 살았으면 아무 일 없을텐데...' 물이 그럴 겁니다. 아마, '나는 어떤 게 막혀도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은 막히면 뚫고 나갈려고 애쓰니까 너 막히는 거지' 하고 흥을 붙인다. 흥은 흥대로 자기처럼 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파 제하고 아무리 해도 왜 파느냐 아프다 어떻다 한 마디 없어요. 뒤집건 메꾸건 뒤집건 건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바로 그렇게 들로 보지 않는다면 서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해요. 개가 반강하고 그냥 서로 싸우는 거 같이 보이죠? 그건 사람들이 들어 부부가 나가면서 서로 장난하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사랑, 사랑 하는 소리가 그냥 들리지만 사람이 볼 땐 싸우는 걸로 봅니다. 이 모두 나같이 알고 즉 여러분 같이 알고 감사히 생각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라. 국왕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국민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부모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형제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모든 은혜,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죠. 혼자 산다면 웃도 입지 말아야 하고 먹을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뉘 땅도 던지 말아야 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 만유를 창조해 나가는 인연의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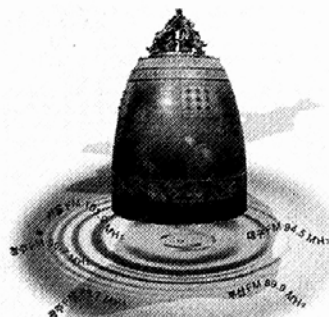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후원회 ARS : (02)700-0108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229

○ 주소 : 우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전화 : 02-705-5114)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각	프로그램	진행자	비고	시각
05	00 아침예배 (승가대스님)			05
	05 마음공부 (박종수) (박종수) (박종수)			
06	00 뉴스 (박종수)			06
	10 경리공부 (정민준) (정민준) (정민준)			
	30 고승법회 (구인) (구인) (구인)			
	40 교리강좌 (박종수)			
00	뉴스 (박종수)			
07	10 진행 365일 (김종민)		05. 신년 365일(김종민)	07
	15 명종은의 아침저녁 1부 (박종수)		10 월 10일 (박종수)	
08	00 BBS 뉴스특보 (보도팀) (보도팀) (보도팀)		00 명종은의 아침저녁 2부 (박종수)	08
	00 뉴스 (박종수)		00 명종은의 아침저녁 3부 (박종수)	
09	00 뉴스 (박종수)			09
	05 차관회의 진행 (정민준) (정민준) (정민준)			
	00 뉴스 (박종수)			
10	05 차관회의 진행 (정민준) (정민준) (정민준)			10
	05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00 라디오예배 (이명학) (이명학)	
11	00 뉴스 (박종수)			11
	10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12	00 중요종합뉴스 (박종수) (박종수) (박종수)		12 15-1220 L	12
	30 차관회의 진행 1부 (박종수)			
13	00 뉴스 (박종수)			13
	05 차관회의 진행 2부 (박종수)			
14	00 뉴스 (박종수)			14
	10 뉴스 대담 (정민준) (정민준) (정민준)		05 우리 가사의 향기 (송혜진)	
	50 고승법회 (박종수)			
15	00 뉴스 (박종수)			15
	10 BBS 생활상담실 (이명학) (이명학) (이명학)		05 신년 365일(김종민)	
	15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05 신년 365일(김종민)	
16	00 뉴스 (박종수)			16
	10 음악의마음 (이명학) (이명학) (이명학)			
17	00 뉴스 (박종수)			17
	10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00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05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05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18	00 저녁예배 (승가대스님)			18
	15 경리공부 (정민준) (정민준) (정민준)		15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19	00 뉴스 (박종수)			19
	30 고승법회 (박종수)			
	05 차관회의 진행 (정민준) (정민준) (정민준)		10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20	00 뉴스 (박종수)			20
	05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10 신년 365일(김종민)			
21	15 경리공부 (정민준) (정민준) (정민준)			21
	40 고승법회 (박종수)			
	05 차관회의 진행 (정민준) (정민준) (정민준)			
22	00 뉴스 (박종수)			22
	05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23	00 뉴스 (박종수)			23
	10 BBS 뉴스특보 (보도팀) (보도팀) (보도팀)			
24	00 뉴스 (박종수)			24
	10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00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01	00 명종은의 아침저녁 (박종수)			01
	05 아침예배 (승가대스님)			